



통쾌한 발리슛... 박주영 5호골

佛 진출후 첫 2경기 연속골...팀내 에이스 굳혀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시즌 5호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 2009-2010 정규리그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35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17일 스타드 렌과 리그 홈 경기(1-0 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뽑은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 5호골(2도움)을 모나코 입단 첫해였던 2008-2009시즌 다섯 골을 기록했던 박주영으로서는 프랑스 진출 후 통산 10번째 골이기도 하다. 연속골은 프랑스 리그에서는 처음이다.

에초 박주영은 렌과 경기에서 올 시즌 세 번째 경고를 받아 이번 리옹과 대결에는 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경고 누적에 따른 출전정지 경기는 내년 1월 10일 프랑스컵 투르FC와 64강전으로 확정돼 이번 경기에서 나설 수 있었다. 박주영은 최전방 원톱으로 이날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모나코는 홈 경기였지만 2001-2002 시즌부터 7회 연속 프랑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강호 리옹을 맞아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다. 선제골도 리옹에 내줬다. 전반 22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브라질 국가대표 미셀 바스

토스가 찬 발리슛이 회전없이 빨갛출처럼 날아가 그대로 모나코 골문 구석에 꽂혔다. 스타드 루피에 모나코 골키퍼가 골막 못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강력한 킥이었다. 모나코는 전반 32분 장 마르의 결정적 헤딩슛을 푸피에가 막아내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기는 등 리옹의 공세에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주영의 한 방으로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전반 35분 프리킥 공격 때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넘어온 공을 지미 트라오레가 오버헤드킥으로 중앙으로 보냈고, 다시 세바스티안 푸이그레니가 헤딩으로 흘러주자 박주영이 골문 앞에서 오른발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그물을 울렸다. 이날 승점을 나눠 가져 모나코는 8승2무7패(승점 26), 리옹은 8승6무4패(승점 30)가 됐다. /연합뉴스



이렇게 좋을수가! AS모나코 박주영이 21일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5분 동점골을 성공 시킨 후 팀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광태휘 J-리그 교토 이적

전남 드래곤즈의 '골넣는 수비수' 광태휘가 일본 J리그 교토 상가 FC에 새동지를 든다. 전남은 21일 "광태휘의 메디컬 테스트가 완료됨에 따라 일본 교토 상가로의 트레이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남은 또 "전남에 꼭 필요한 선수이지만 광태휘가 외국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다"고 이적 배경

을 설명했다. 이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 광태휘는 지난 2007년 FC 서울에서 전남으로 이적한 뒤 36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A매치 8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출전해 3골을 넣는 활약으로 '골넣는 수비수'라는 별명을 얻는 등 허정무호의 황태자로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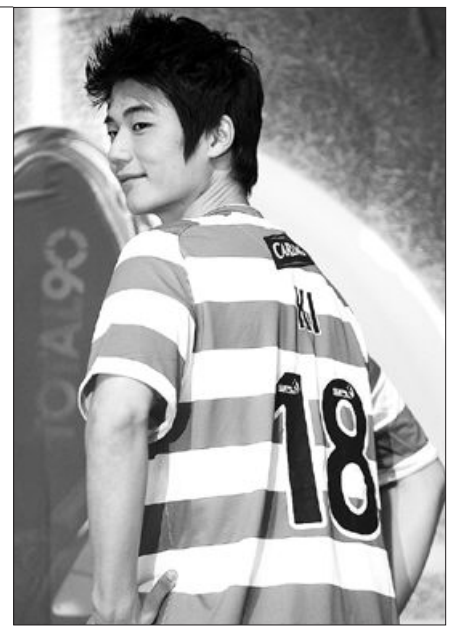


을 받았다. 지난 12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광태휘는 올 시즌 10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지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한 국가대표팀 예비명단 35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남 박항식 감독은 광태휘의 이적으로 생긴 수비라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험있는 미드필더의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등번호 18번' 셀틱 입단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FC로 이적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20)이 새 유니폼을 입고 셀틱 선수로 첫 걸음을 뒀다. 기성용은 21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 나이가 쇼룸에서 셀틱 입단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밝혔다. K-리그 FC서울에서 활약해 온 기성용은 내년 1월1일부터 4년간 셀틱에서 뛰기로 계약했다. 팀 합류를 위해 23일 출국할 기성용은 기자회견에 앞서 셀틱에서 입고 뒀던 등번호 1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피터 로웰 구단 사장에서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로웰 사장은 "내가 선수의 고국을 직접 찾아가 영입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기성용에 대한 우리의 기대

가 얼마나 크고,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명문 클럽 셀틱에 입단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라 책임감이 크다.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더욱 모범이 되고 우리나라를 빛낼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리그 끝나고 휴식기에 셀틱에 합류하게 된 기성용은 "그동안 정상적 운동을 하지 못했다.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셀틱에 가서도 스테파와 함께 몸을 만들어가면 된다. 크게 욕심은 내지 않지만, 하루빨리 정상 몸 상태를 만들어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FC로 이적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이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에서 가진 입단 기자회견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체육인의 밤'

오늘밤 염주체육관

광주체육의 한해를 결산하는 '2009 광주체육인의 밤 행사'가 22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5 광주 하계U대회와 하계U대회를 함께 치러줄 광주체육인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원·선수 등 1천 500여명이 참가할 가운데 2015 하계U대회 유치 영상물 상영과 광주체육을 빛낸 공로자들에게 대한 시상식도 가질 계획이다. 시상은 원로체육인에 대한 특별공로패, 경기단체 회장에 대한 공로패, 후임업체와 육성팀 학교에 대한 감사패, 시정및 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에 대한 표창과 노력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행사로는 태권도 시범·경기단체 장기자랑·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되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워드, 2년연속 1천야드 돌파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33·피츠버그 스틸러스)가 2년 연속 1천 야드를 돌파했다. 워드 리시버 워드는 21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홈구장인 랜슬베이나우어 피츠버그 하인즈필드 홈구장에서 벌어진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즌 15주차 경기에서 7번 패스를 받아 126야드를 전진했다. 워드는 이 경기까지 올 시즌 피츠버그가 치른 14경기에 모두 출장해 83차례 패스를 받아 1천69야드를 달렸다. 터치다운도 6개를 기록 중이다. 작년(1천43야드)에 이어 2년 연속 특급 리시버의 척도인 1천야드를 돌파한 워드는 1998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후 통산 6번째 1천야드 고지를 밟았다. /연합뉴스

광덕중 유소년 축구팀 29일 창단

프로축구 상무 산하 U-15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도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산하 U-15 유소년 클럽인 광덕중 축구팀이 29일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광덕중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광덕중학교 체육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광덕면 시의회장, 이순일 교육감, 김주훈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부 창단식을 갖는다. 광덕중 초대 사립장은 금호고 출신의 김성구(40) 감독이 맡는다. 고려대 출신의 서저원(25) 코치도 선임됐다. 지난 10월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23명의 선수는 합숙훈련중이다. 이날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도 동시

에 열린다. 이번엔 개장하는 운동장은 가로 105m, 세로 68m(공사면적 6천700㎡)규모로 지난 9월 착공해 지난 16일 완공됐다. 운동장 개장에 따른 총공사비용은 6억4천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유소년 육성 지원금으로 완공됐다. 광덕중은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으로 광주지역 학원 최초로 국제 규격의 운동장을 보유하게 됐다. 상무구단은 광덕중 축구단 창단과 함께 금호고등학교와 연계되는 클럽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상무는 이번 창단으로 광주를 연고로하는 프로구단 창단시 지역 출신 선수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구활성화와 인재육성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성성기능 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연강장영양을 하여 나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한달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010-7770-8138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지원 등차입 3% (1년 가산 36% 금융비용 감면)

농촌, 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골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필러모인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지일종 경점차

한라헬스텍(주)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284/1858	550㎡	2000만	1차경매
	북구	588/812	1999㎡	1100만	1차경매
부산	북구	1174/1327	1155㎡	4500만	1차경매
	북구	788/1480	788㎡	5000만	1차경매